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언어·인지 발달의 매개효과*

홍 예 지¹⁾ 강 수 정²⁾ 이 강 이³⁾ 최 나 야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의 5차, 6차, 7차년도 자료의 유아 총 951명을 선택하였다.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둘째, 만 5세의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과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적절한 인지·언어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 한 결과로, 관련 논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정환경자극, 언어·인지 발달, 사회적 유능감,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 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사업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2B20152813529).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hoy08@snu.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I. 서 론

유아기는 부모-자녀 관계,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넘어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생애 초기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양상을 습득하고, 육아지원기관에서 단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차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의 기술을 통해 폭넓은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아간다(손희진, 성지현, 2014). 이처럼 유아가 경험하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들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전반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Hartup & Stevens, 1997). 즉, 유아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활발해지고, 또래 관계 내 규칙과 사회적 규범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고, 이와 더불어 언어 및 인지 능력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이므로 이 시기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을 말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기준 및 조건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정서적 및 행동적 능력을 포함한다(Hebert-Myers, Guttentag, Swank, Smith, & Landry, 2006; Raver & Zigler, 1997). 무엇보다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위해서는 인지적,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놀이 활동 및 놀이감을 공유하는 등의 상황에서 유아 스스로 원하는 것을 탐색하고, 자신 및 타인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절충하여 선택적 판단을 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형성되는데 이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 사회의 유능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발달에 기능적 역할을 하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인의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점(Elliott, Malecki, & Demaray, 2001)에서 중요하므로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사회적 기술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유아는 자신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후 학령기가 되어서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Kostelnik, Gregory, Soderman, & Whiren, 2009). 이에 반해 Gresham(2002)은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유아의 경우, 낮은 자아 개념과 또래 수용 및 의미 있는 동료애 성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상호 관계 형성 및 이후의 발달적 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선행연구는 주로 부모 요인을 강조하며, 부모의 소득,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관련성을 밝혀 왔다(김지연, 김영희, 2017; 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Barnett, Gustafsson, Deng,

Mills-Koonce, & Cox, 2012; Keltner & Haidt, 2003). 그러나 부모의 개별적인 양육태도와 특성을 아울러 전반적인 가정환경 내의 학습 자료나 물리적 환경의 제공과 같은 물리적 요소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시 자녀에게 제공하는 주 양육자의 반응성, 언어자극, 다양성, 수용성 등 인적 요소와 같은 높은 가정환경 내 질적 자극의 수준이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아동기나 학령 전 시기의 유아에게 가정환경의 역할은 지대하다.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맥락(Bornstein & Tamis-LeMonda, 1997)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은 가정환경의 구조, 인지적 자극 및 정서적 지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김수정, 곽금주, 2015; Jaffee, 2007)가 가정환경의 질적 특성과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 중 지능, 지적 수행력, 학문적 성취와 같은 인지 발달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즉, 가정환경의 환경적 맥락에서의 질적 자극의 수준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김수정, 곽금주, 2015; 김수진, 김수영, 2009; 이지연, 곽금주, 2008; 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De Feyter & Winster, 2009; Son & Morrison, 2010)는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가정환경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학습 자료 등의 인지적 자

극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며, 이를 동반한 활동 및 부모의 민감한 반응이 유아의 언어 발달 및 인지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지연과 곽금주(2008)는 3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중 학업 자극과 언어적 자극이 이들의 표현 언어를 예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학습 도구의 다양성, 주거환경이 이들의 수용 언어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183명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환경 내 경험과 이들의 언어 및 수 능력의 발달을 살펴 본 Skwarchuk, Sowinski와 LeFevre(2014)의 연구는 형식적 및 비형식적인 가정환경 내 경험이 유아의 어휘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혔으며, Son과 Morrison(2010)의 연구도 가정환경의 교육적 영향이 아동의 인지 능력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인지학자인 Piaget(1952)는 아동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옥분(2004) 역시 언어 습득은 인지적 사고의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유아의 언어 발달과 인지적 능력의 발달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의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을 독립적인 요인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 있지만 두 변인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해서 관련 변인의 통합적인 영향력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높은 수준의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 또래놀이행동과 같은 또래관계의 사회적 기술 즉, 또래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혜경과

조성연(2002)은 만 4, 5세 유아의 높은 수준의 질적 가정환경자극이 이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 밖에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선희, 2014; 임현주, 2014; 장영은, 2015; 한명숙, 서선숙, 2013)가 다수 존재하지만 사회적 유능감을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환경 내 자녀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인지적, 언어적 자극과 풍부한 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의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또래유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adley 등(2001)의 연구는 유아 자녀를 둔 가정 내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통제 한 후 부모가 자녀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을 제공하고, 언어 및 인지적으로 풍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 자녀의 언어 및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능력은 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arnett et al., 2012; Hebert-Myers et al., 2006). 언어는 사회적 행동으로 사회적 인지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인지적 능력 역시 사회적 적응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omasello, 1992). 다시 말해, 유아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언어 능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가능하다. 더불어,

인지적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 논리적 사고와 판단을 수반하는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여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성 발달 각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가정환경자극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을 거쳐 간접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영은과 성미영(2015)의 연구는 만 3세 유아의 어휘능력이 가정환경자극과 이들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관계 행동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함을 보였으며, 김선희(2014)의 연구 역시 35-42개월 유아의 높은 수준의 가정환경 내 자극이 언어능력을 통해 이들의 또래놀이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Hebert-Myers 등(2006)의 연구는 252명의 만 3세 유아의 언어적 기술 및 놀이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술이 이들이 8세가 되었을 때의 언어 능력과 주의 조절 능력을 통해 만 8세의 또래유능감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종단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 모두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중 또래유능감을 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대표하는 능력으로 상정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또래유능감은 또래 관계에 집중한 능력으로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에서의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

위 개념으로 다루어지고(송주미, 2006), 이에 유아기의 또래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개념적 구별 역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또래유능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원을 통합한 능력을 일컫는 사회적 유능감(Hebert-Myers et al., 2006)으로 범위를 넓혀 가정환경 내의 통합적인 자극의 수준 및 언어·인지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 생애 발달에서 더욱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 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아의 가정환경자극과 언어·인지 발달 간의 종단적 영향만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거나 미시적인 또래관계의 사회적 기술을 의미하는 또래유능성만을 고려하여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세 변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총 2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5세가 되었을 때의 언어·인지 발달 및 만 6세가 되었을 때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변인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의 개별적 접근을 넘어서 가정환경 내 자극의 인과적 역할을 통

합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유아의 긍정적 발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과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과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종단적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2013)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도부터 아동 및 가족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 패널 연구다. 통제 변인으로 사용한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은 5차년도(2012), 언어·인지발달은 6차년도(2013), 사회적 유능감은 7차년도(2014)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 간 종단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김선희, 2014)를 근거로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부와 모의 교육수준과 연령을 선택하였으나 이 중 부와 모의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연도별로 해당 변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은 총 951명이다. 5차년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은 만 48-54($M = 51.23$, $SD = 1.31$)개월에 속하며, 성별은 남학생 498명(52.4%), 여학생 453명(47.6%)으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만 34.83세($SD = 3.67$), 어머니의 연령은 만 37.27세($SD = 3.95$)이며,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43.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26.5%, 전문대 졸업이 19.9%로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28.3%, 전문대 졸업 27.1%에 해당하였다.

2. 측정도구

가정환경자극

한국아동패널의 가정환경자극은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을 통해 수집되었다. EC-HOME은 면접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 양육자와의 면접 또는 관찰을 통해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학습자극, 반응성, 다양성, 수용성 및 자녀를 위한 부모의 행동 모델링의 8개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환경자극을 자녀에게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총 55개의 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0점(아니오) 또는 1점(예)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요인적재치 및 연구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료, 다양성, 반응성 총 3개의 변인을

선택하였으며, 각 하위변인 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의 학습자료, 다양성 및 반응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자료는 유아의 가정환경에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정도 및 학습에 대한 부모 자신의 열의를 포함하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며, Cronbach's α 계수는 .66이었다. 다양성은 유아에게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가족의 생활 방식을 포함하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61이었다. 반응성은 유아에 대한 주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포함하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Cronbach's α 계수는 .70이었다.

사회적 유능감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한 척도를 통해 수집되었다. 유아가 재원 중인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유아가 원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을 기초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교사평정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주장성, 협력성 및 자기통제의 3개의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모두 3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다)로 측정된다. 각 하위변인 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장성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친구를 칭찬할 수 있으며, 놀이를 할 때 친구에게 함께 하자

는 말을 할 수 있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며, 수업 중 학업을 잘 수행하고, 집단 활동에 잘 참여 한다 등 총 9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89이었다. 자기통제는 친구에게 놀림을 당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Cronbach's α 계수는 .84이었다.

언어·인지발달

한국아동패널의 언어·인지 발달은 이종숙 등(2008)이 개발한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중 언어·인지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선택해 수집되었다.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가 일상의 교실 상황을 관찰하여 평정하는 교사평정용 척도를 통해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을 확인하였다. 언어 발달은 단어 이해하기, 범주어 사용하기, 사물 설명하기 및 끝음절 인식하여 말하기 등을 확인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되며, 인지 발달은 상징적 사고, 논리적 추론하기, 공감개념 갖기 및 패턴 만들기 등을 확인하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0점(아니오) 또는 1점(예)으로 측정되며, 점수는 동일 생활연령에 준거하여 또래와의 상대적 위치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언어 발달의 Cronbach's α 계수는 .70이며, 인지 발달의 Cronbach's α 계수는 .76이었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22.0과 Mplus 7.4를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 모형이 연구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되는지 측정 모형을 확인하고, 변인 간의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평가는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과 함께 RMSEA, SRMR, TLI 및 CFI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RMSEA의 경우 .06이하, SRMR의 경우 .08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ders, 1999).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해 생략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1과 같다. 각 변인별 왜도 및 첨도를 기초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절대값의 기준인 왜도 > 2, 첨도 > 7이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 = 951)

	1	2	3	4	5	6	7	8
1	-							
2	.32***	-						
3	.25***	.39***	-					
4	.07*	.05	.06*	-				
5	.04	.05*	.03	.60***	-			
6	.03	.04*	.00	.11**	.13***	-		
7	.02	.06**	.05	.23***	.24***	.41***	-	
8	.01	.09**	.07*	.20***	.16***	.62***	.67***	-
M	8.67	8.22	6.39	62.02	67.21	2.48	2.66	2.40
SD	1.00	1.03	1.13	33.51	29.06	.43	.39	.44
Skewness	-2.10	-1.72	-2.25	-.20	-.48	-.63	-1.24	-.52
Kurtosis	6.30	4.09	5.59	-1.30	-.88	-.38	.89	-.36

주. 1. 가정환경자극_학습자료, 2. 가정환경자극_다양성, 3. 가정환경자극_반응성, 4. 언어 발달, 5. 인지 발달, 6. 사회적 유능감_주장성, 7. 사회적 유능감_협력성, 8. 사회적 유능감_자기통제.

* $p < .05$. ** $p < .01$. *** $p < .001$.

아니면 자료가 정상분포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Curran, West와 Finch(1996)의 기준에 따라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Pearson의 상관분석에 기초하여 각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중 학습자료는 다양성($r = .32$, $p < .001$), 반응성($r = .25$, $p < .001$) 및 만 5세의 언어발달($r = .07$, $p < .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중 다양성은 반응성($r = .39$, $p < .001$), 만 5세의 인지발달($r = .05$, $p < .05$)과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 중 주장성($r = .04$, $p < .05$), 협력성($r = .06$, $p < .01$) 및 자기통제($r = .09$,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중 반응성은 만 5세의 언어발달($r = .06$, $p < .05$)과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 중 자기통제($r = .07$, $p < .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만 5세 유아의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은 1년 이후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 요인 간에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2.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측정모형 검증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종단적 구조적 관계를 검

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을 설명하는 측정 변인이 잠재 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먼저 집중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검증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말하는 AVE는 .50이상, CR은 .70이상의 경우 매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Fornell & Larcker, 1981). AVE값은 .90에서 .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R값 역시 .94에서 .98로 Fornell과 Larcker(1981)의 기준에 부합하여 모든 측정 변인이 잠재 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요인적 재치를 확인한 결과 잠재 변인에 대한 측정 변인의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댓값이 .56 이상 .98 이하로 나타나 각각의 잠재 변인에 대한 집중 타당도의 기준을 충족시켰다(Bagozzi, Wong, & Yi, 1999).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판별타당도는 AVE값과 잠재 변인 간 상관 계수 제곱 값을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는데 AVE값이 잠재 변인 간 상관계수 제곱 값 .21보다 크므로 판별타당도 역시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Bagozzi & Yi, 1988).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으며, 연구 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됨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의 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이들의 1년 이후의 언어·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이 또 다른 1년 이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모두 설정하여 각 변인 간 종단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3과 같이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 = 85.70$ ($df = 31$, $p < .001$), RMSEA = .043 [90% C.I. .032-.054],

표 2. 측정 모형의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RMSEA 90% C.I.	SRMR	CFI	TLI
측정모형	49.54***	17	.045 [.031 - .060]	.027	.982	.971

*** $p < .001$.

표 3. 구조 모형의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RMSEA 90% C.I.	SRMR	CFI	TLI
구조모형	85.70***	31	.043 [.032 - .054]	.031	.971	.95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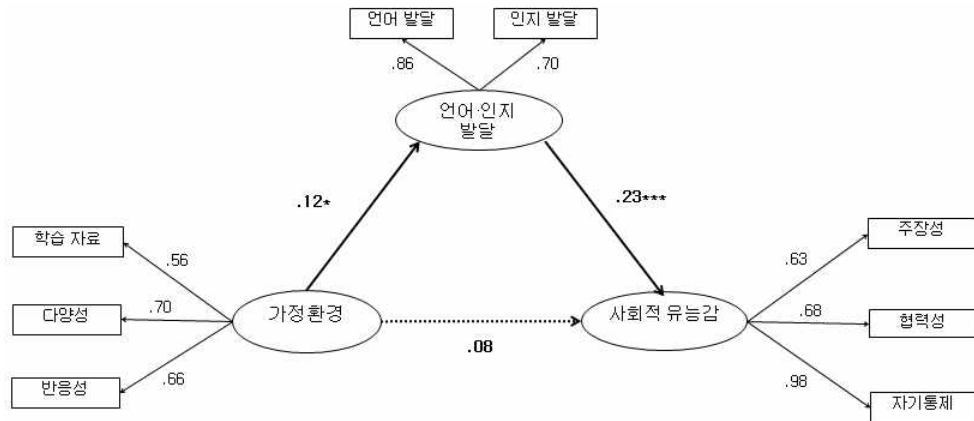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종단적 구조 모형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이고,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모든 경로는 표준화계수임. 통제 변인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하여 생략하였음.

* $p < .05$. *** $p < .001$.

SRMR = .031, CFI = .971, TLI = .958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으며, 모형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구조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beta = .14, p < .05$)과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11, p < .05$)이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5세의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beta = .12, p < .05$)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 내 자극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언어·인지 발달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만 5세의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이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beta = .23, p < .001$)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는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 후 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협동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부와 모의 교육

수준이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은 만 5세의 언어·인지 발달을 통해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과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추정횟수(n)를 10,000으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랩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4와 같이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5세의 언어·인지 발달을 통해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03, p < .05, 95\% \text{ C.I. } [.002-.053]$). 즉, 만 4세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 내 학습자료, 다양성 및 반응성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

표 4.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β	Bias-corrected 95% C.I.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 사회적 유능감	.03*	[.002-.053]

* $p < .05$.

록, 1년 후 이들의 언어·인지발달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렇게 발달된 언어·인지능력은 이들의 1년 후의 사회적 유능감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변인 간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5세의 언어·인지 발달 및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이 1년 이후인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만 4세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자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은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

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자료를 풍부히 제공하고,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제공하는 등 가족의 생활방식 및 부모의 온정적인 반응 태도가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수진, 김수영, 2009; 이지연, 박금주, 2008; De Feyter & Winster,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정환경 내의 개별적인 특성을 넘어 물리적 환경의 제공 및 주 양육자의 인적 요인과 같은 높은 가정환경 내 질적 자극의 수준이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즉, 1년이라는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며,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적 자극의 제공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가정환경 내 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는 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 유아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둘째,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언어 능력 및 인지적 발달의 수

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자발적인 언어 사용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의 행동 및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인지적 선택이 이들의 사회적 관계의 기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종단적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Barnett et al., 2012; Hebert-Myers et al., 2006)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17개월에서 41개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의 발달과 공격성 간의 종단 연구를 수행한 연구(Girard et al., 2014)를 참고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어휘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이 후 또래놀이상황에서 공격성의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의 인지,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일컫는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위해 부모의 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인지 자극의 제공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관련된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 두 변인 간 종단적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은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정환경자극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이 매개적 역할을 함을 검증하였다. 먼저,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은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높은 수준의 가정환경자극

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또는 또래놀이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선희, 2014; 임현주, 2014; 장영은, 2015; 한명숙, 서선숙, 2013)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두 변인 간 횡단적 관계를 살펴 본 선행 연구와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2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선행연구 대부분이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이 이 연구에서 상정한 유아의 포괄적인 사회적 능력인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또래관계의 사회적 기술에만 한정된 또래놀이상호작용,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의 증가와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의 확대로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의 연령을 낮아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대변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 내 자극이 학령기로의 전이를 바로 앞둔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이 시기의 대부분의 유아는 단체생활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영아 및 초기 유아 시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 앞서 육아지원기관의 역할로 전이되어 가정환경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가정 내의 적절한 물리적 및 인적 요인의 제공뿐만 아니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의 역할이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만 5세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은 만 4세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자

극과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인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1년 후 유아의 언어 능력과 인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1년 후 이들의 사회적 상황에서도 타인과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가정환경 내 질적 자극이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각 변인 간 횡단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김선희, 2014; 장영은, 성미영, 2015)와 유사한 맥락이며, 3세 유아가 8세가 될 때까지의 또래유능감의 예측요인으로 언어적, 사회적, 행동적 기술의 장기적 영향력을 살펴 본 종단 연구(Hebert-Myers et al., 2006)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지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통합적으로, 가정환경자극,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의 고려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을 매개로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밝힌 것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 언어·인지 발달이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아가 부모, 또래, 교사 등 타인과의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하여 사회관계 형성 및 발달에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이해 및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공감의 능력을 높이는 등의 인지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유아의 언어 발달과 인지적 성숙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아의 낮은 언어 및 인지적 기술이 또래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갈등 상황에서 협상을 어렵게 하여 또래 놀이 방해 및 또래 거부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우울, 위축, 공격성과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등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cDougall, Hymel, Vaillancourt, & Mercer, 2001)를 근거로 가정 및 육아지원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정환경자극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의 소득, 부모의 학력 및 직업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지위가 언급되고 있다(김선희, 2014; 김수진, 김수영, 2009). 즉,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학습자료, 학습자극, 언어자극, 반응성, 다양성, 물리적 환경과 같은 가정환경자극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이는 결국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또래관계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가정환경자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발달 간에 유의한 구조적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 부모의 직업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자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정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녀 양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 개선 등의 가정환경 중재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 자극,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인간 생애 발달에 있어 타인과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유능감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가정환경 내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언어, 인지, 사회성을 아우르는 유아의 통합적인 발달을 종단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각 변인은 방문자의 관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면접 및 육아지원기관의 유아의 담임교사를 통해 평정된 결과로, 각 변인에 맞게 객관적인 측정이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추후 연구를 설계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환경자극의 다양한 하위요인 중 학습자료, 다양성, 반응성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으므로 가정환경자극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자극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둘째, 가정 내에서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정환경 자극 제공에의 참여를 고려하여 모형을 확

장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2차 자료를 사용한 한계로 이 연구의 주요변인이 해당 시점에 반복 측정되지 않아 관련성을 살펴보기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즉, 이전 시점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정환경자극과 언어·인지 발달과 함께 기능하여 이 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해당 변인의 반복 측정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연구 변인 간의 관련성을 보다 엄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 간의 관계에 있어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 역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선희 (2014).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언어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5(3), 93-114.
- 김수정, 박금주 (2015). 7세 아동 지능 발달에 대한 예언 변인 탐색: 3세 가정환경과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2(2), 75-91.
- 김수진, 김수영 (2009). 가정환경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5), 87-102.
- 김지연, 김영희 (2017). 어머니의 정서성,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117-

- 137.
- 김혜경, 조성연 (2002).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 환경(HOME)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한국가족복지학*, 7(2), 3-16.
- 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부모 소득 및 학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13(1), 37-54.
- 서미옥 (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손희진, 성지현 (201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교사-유아 상호작용 질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2), 191-209.
- 송주미 (2006). 집단치료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또래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권리연구*, 10(1), 95-115.
- 육아정책연구소. (2013). *한국아동패널연구 5, 6, 7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숙, 신은수, 박은혜, 김영태, 곽영숙, 유영의, 최인선, 유홍옥, 고혜란 (2008). 영유아의 언어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교사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지연, 곽금주 (2008). 아동 초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143-157.
- 임현주 (2014). 유아의 기질 및 가정환경과 또래 상호작용이 만 3세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83-201.
- 장영은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 온정성과 교육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6), 1-21.
- 장영은, 성미영 (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명숙, 서선숙 (2013).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구조분석. *생태유아연구*, 12(1), 27-47.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gozzi, R. P., Wong, N., & Yi, Y.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Cognition & Emotion*, 13(6), 641-672.
- Barnett, M. A., Gustafsson, H., Deng, M., Mills-Koonce, W. R., & Cox, M. (2012). Bidirectional associations among sensitive parenting, language development, and social competence.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4), 374-393.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 (1997). Maternal responsiveness and infant mental abilities: Specific predictive relations. *Infant*

- Behavior and Development*, 20(3), 283-296.
- Bradley, R. H., Corwyn, R. F., McAdoo, H. P., & Coll, C. G. (2001). The home environment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 Variations by age, ethnicity, and poverty status. *Child Development*, 72(6), 1844-1867.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Little Rock.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 Feyter, J. J., & Winsler, A. (2009). The early developmental competencies and school readiness of low-income, immigrant children: Influences of generation, race/ethnicity, and national origi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4), 411-431.
- Elliott, S. N., Malecki, C. K., & Demaray, M. K. (2001). New directions in social skill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Exceptionality*, 9(1-2), 19-32.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val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irard, L. C., Pingault, J. B., Falissard, B., Boivin, M., Dionne, G., & Tremblay, R. E. (2014). Physical aggression and language ability from 17 to 72 months: Cross-lagged effects in a population sample. *PloS one*, 9(11), e112185.
- Gresham, F. M. (2002). Best practices in social skills training. In A. Thomas & J. Grimes (Eds.), *Best practices in school psychology Vol. 4* (pp. 1041-1056).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rson Prentice Hall.
- Hartup, W. W., & Stevens, N. (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3), 355-370.
- Hebert-Myers, H., Guttentag, C. L., Swank, P. R., Smith, K. E., & Landry, S. H. (2006). The importance of language, social and behavioral skills across early and later childhood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0(4), 174-187.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ffee, S. (2007). Sensitive, stimulating caregiving predicts cognitive and behavioral resilience in neurodevelopmentally at-risk infa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3), 631-647.
- Keltner, D., & Haidt, J. (2003). Approaching awe, a moral, spiritual, and aesthetic emotion. *Cognition & Emotion*, 17(2), 297-374.
- Kostelnik, M. J., Gregory, K. M., Soderman, A.

- K., & Whiren, A. P. (2009).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McDougall, P., Hymel, S., Vaillancourt, T., & Mercer, L. (2001). The consequences of childhood peer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13-2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Skwarchuk, S-L., Sowinski, C., & LeFevre, J.-A. (2014). Formal and informal home learning activities in relation to children's early numeracy and literacy skills: The development of a home numeracy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21, 63-84.
- Son, S. H., & Morrison, F. J. (2010). The nature and impact of changes in home learning environment on development of language and academ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103-1118.
- Tomasello, M. (1992). The social bases of language acquisition. *Social Development*, 1(1), 67-87.

1 차원고접수 : 2017.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7.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7. 11. 21.

The Longitudinal Effects of Young Children's Home Environment Stimuli on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Hong, Yea-Ji¹⁾

Kang, Sujoeng¹⁾

Lee, Kangyi^{1),2)}

Choi, Naya^{1),2)}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effects of home environment stimuli on the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and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The study used data from 951 young children from the 5th, 6th, and 7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alpha and correlation; the hypothesized model was verifi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home environment stimuli at 4-years-old significantly predicted better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at 5-years-old when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levels on home environment stimuli were controlled. Secondly,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of high levels of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at 5-years-old on positive social competence of 6-year-olds. Lastly, the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at 5-years-old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stimuli at 4-years-old and social competence at 6-years-old.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imely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as a mediating factor in the connection between home environment stimuli and the level of social interactive skills. Other relate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words: home environment stimuli,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 longitudinal stud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